

힘내라후쿠시마

~ Voices from Fukushima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곤란한 생활을 하고 계실 피해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따뜻한 응원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공재)후쿠시마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당초부터 본 협회의 홍보지 "Gyro"의 지진부흥판 "힘내자 후쿠시마" 발행해 후쿠시마현의 현황 및 부흥을 향한 국제교류, 협력 단체와 거주 외국인의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지의 번역판은 본 협회 HP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풍경

‘외국인 주민에게 있어서 동일본대지진, 원전사고를 생각해보는 후쿠시마 포럼’ 개최



(왼쪽 사진)
8/2 원전사고의 영향을 견학한 ‘거리투어’
(가운데 사진)
8/2 그룹토론의 모습
(오른쪽 사진)
8/3 가와우치무라의 야채공장 시찰 (버스투어)

8월 2일 (금)부터 3일 (토)에 걸쳐서 전국의 자치단체와 국제 교류 협회의 직원, 대학교 등에서 외국인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등 약 70명 정도가 참가하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8월 2일(금) 오전 중에는 옵션이었던 ‘거리투어’를 실시하여 참가자 25명이 후쿠시마역 서쪽출구 주변을 걸으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원전사고의 영향을 보고 왔습니다. 오후의 포럼에서는 외국출신 12명의 협력을 얻어 원전사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는가를 그룹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날에는 원전사고로부터 부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26명의 참가자와 함께 가와우치무라를 견학하고 오후에는 후쿠시마에 돌아와 이이다테무라(마을)의 간노 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는 ‘원전사고당시, 2개의 조국을 가진 외국 출신의 주민에게 있어서 피난하거나, 피난을 가지 않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원전사고는 쓰나미피해와는 다르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용함”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느낀점을 말해주었습니다.

미나미소마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샤브샤브 연못’

쓰나미 피해와 방사성물질의 걱정 등으로 인해 현재도 해수욕과 물놀이를 즐길 수 없었던 미나미소마시의 아이들을 위해 미나미소마시의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모은 기부금으로 시내 하라초구의 타카미공원에 ‘샤브샤브 연못’이라고 부르는 인공연못을 만들었습니다.

7월 21일 (일)에 개장하여,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장난을 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천경각 ‘서객실’을 견학하는 참가자

서양식과 일본식 각각의 격식을 높이는 만남

8월 21일(수) ‘후쿠시마현민의 날’의 기념 이벤트로 이나와시로마치에 있는 천경각을 종일 무료개방, 근접해 있는 영빈관을 특별 공개 했습니다. 각각의 시설에서 가이드와 함께 견학투어를 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었던 황실의 중요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리

고노 게이코 (후쿠시마시 거주 중국출신 여성)

제가 매일 의식하는 것은 '정상심을 갖고 살자'입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잠깐 동안 냉정함을 잃고, 사소한 일에도 어린 딸아이의 성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얻었고, 나쁜 일은 계속되지 않으며,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다방면으로 사물을 보고 상황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전문제 등 후쿠시마는 아직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보수집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한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혼다 나오키 (후쿠시마시 거주 필리핀출신 남성)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열흘 전, 저희 집에 화재가 나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잠시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또한 지진의 영향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2달 늦어지게 되는 등 2011년도에는 괴로웠던 일 뿐입니다.

지금도 되돌아 보고 싶지 않은 일뿐입니다만, 요리사가 되기 위한 수업을 열심히 한 결과 올해 여름, 후쿠시마 시내에 음식점을 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이 힘들지만 지금은 매우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요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나중에는 지점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류 호 (후쿠시마시 거주 중국출신 여성)

학교가 봄 방학이라 잠깐 집에 와 있었을 때에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니가타의 중국총영사관에서 피난을 하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남편과 시댁을 남겨두고 저 혼자만 피난하기는 싫었기에 중국으로 귀국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사능의 공포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10년전에 일본에 왔을 때에는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일본에서의 생활에 좀처럼 익숙해 지지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진을 경험한 덕분에 제 자신이 전보다 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던 점을 고쳐서 주위의 사람이나 누군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후쿠시마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하는 '후쿠시마 GLOBAL YOUTH COLLEGE2013'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내 각지의 환경방사능 측정치(잠정치)

후쿠시마현 HP에서는 현내 각지의 환경방사능 측정치(잠정치)를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협회 HP에서는 이에 더해 타갈로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로도 수시로 정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http://www.worldvillage.org>

단위 : 마이크로 시버트/시간

일시	후쿠시마시	고오리야마시	시라카와시	아이즈와카마쓰시	미나미아이즈마치	미나미소마시	이와키시
(정상치)	0.04	0.04-0.06	0.04-0.05	0.04-0.05	0.02-0.04	0.05	0.05-0.06
2013.9.10 9:00	0.32	0.17	0.12	0.07	0.05	0.14	0.09
측정장치	가반형MP	가반형MP	가반형MP	가반형MP	가반형MP	가반형MP	고정형MP
후지시마제1원전에서의 방향과거리	북서 약63km	서 약58km	서남서 약81km	서 약98km	서남서 약115km	북 약24km	남남서 약43km

※측정지점은 후쿠시마시의 경우 현북보건복지사무소 북측주차장, 고오리야마시는 고오리야마 합동청사 남측주차장, 그 외의 시정은 각 합동청사 주차장입니다.

※정상치는 2009년도 방사선레벨 조사결과입니다.



알림

○외국어 지진정보센터

당 협회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재난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시간 : 화요일~토요일 9시~17시
- 전화 : 024-524-1316(전용)
- E-mail : ask@worldvillage.org (전용)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960 - 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